전방·일신방직 터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비율 축소되나

10일 도시계획위 심의…사업자측 15%→10% 이상 조정 요청
도심 내 상가 공실률 심각…광주시 상업면적 축소 입법 예고

'더현대 광주' 등이 들어서는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 내 주상복합건물의 상업면적 축소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상업면적) 비율 조정안을 심의한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차 순환도로 내 원도심 상업지역과 광천동·운암동·풍향동·우산동·백운동 등 1차 순환도 연접 상업 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사업자 측은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도 1차 순환도로 내 원도심 상업지역에 관한 단서조항에 해당한다며 10% 적용을 신청했다.

사업자는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을 10% 이상으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당위성 설명자료, 추가 기부채납 계획안 등을 사업자 측에서 제출하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측은 "현재 부동산·건설 금융 환경 악화와 함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마저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은행 이자로만 매일 2억 원씩 지출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광주시에 6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했으며, 이번 상가 의무 비율 완화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160억원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하겠다"며 조속한 인허가 절차 추진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안팎에서도 재택근무 등이 확산한 코로나19 이후 광주 도심 내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마저 불투명한 상업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현재 광주시가 지역 전체에 10%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상업면적 축소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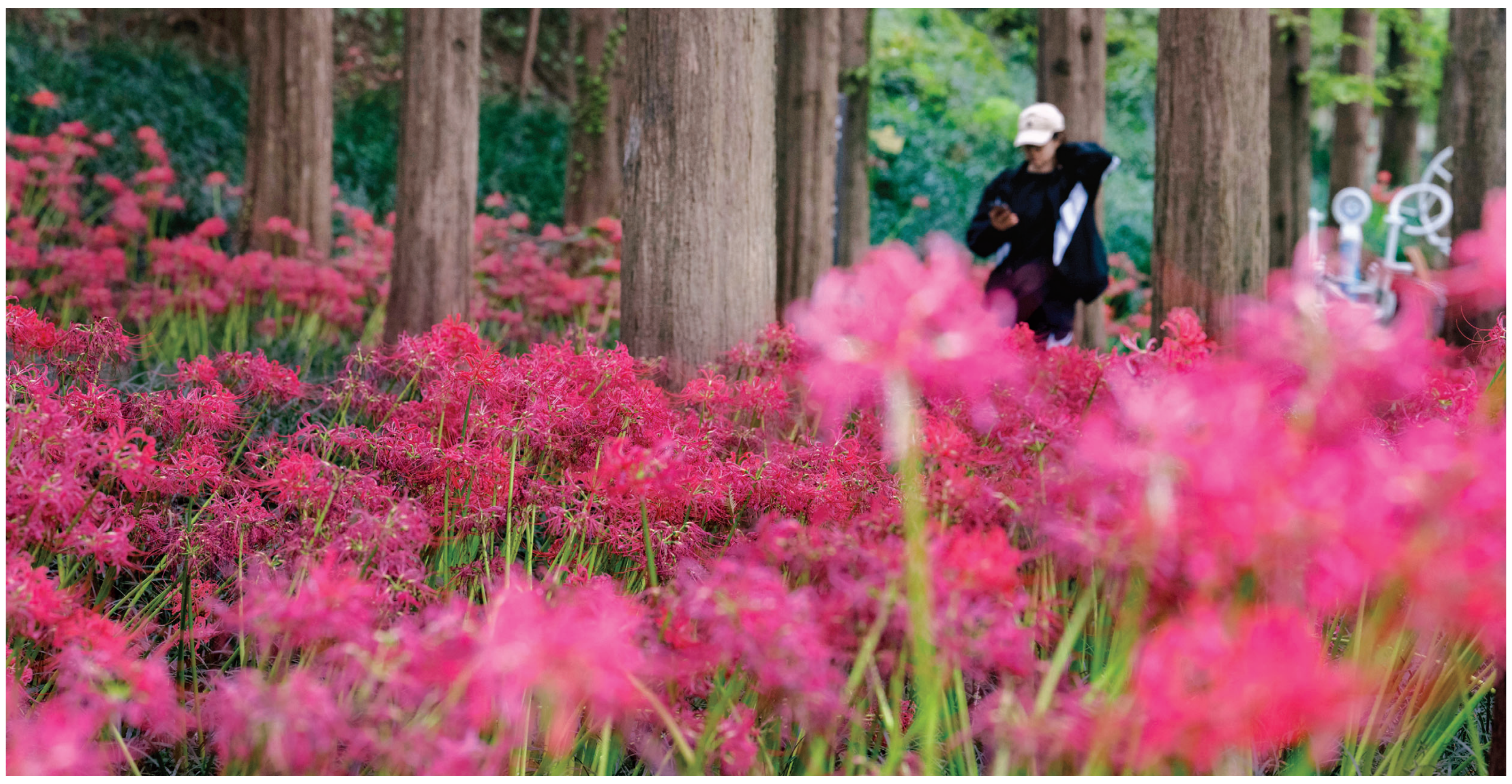
광주시는 지난달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광주시는 심각한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경기침체와 상가 공실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강기정 시장 주재의 월요대화를 통한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올해 5월 '2024년 광주시 도시계획포럼'과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1년여의 검토 끝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미 한차례 재심의 결정을 내린 만큼 사업자측이 추가 제출한 계획서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사화 감상하며 싸목싸목 7일 광주 북구 문흥동 산책로 주변에 만개한 상사화가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노벨 생리의학상, 앰브로스·러브컨 공동 수상

'마이크로 RNA 발견' 공로

빅터 앰브로스

게리 러브컨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빅터 앰브로스(71)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와 게리 러브컨(72) 하버드대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RNA'는 생물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RNA 분자들의 집단, 리보핵산의 일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4000만원)가 수여된다. 두 수상자는 상금을 반씩 나눠갖게 된다.

노벨위원회는 7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벨상 시상식은 통상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 시상식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평화상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 문화·예술 여행지서 만추의 낭만 즐기세요"

전남도, 열화정·금곡영화마을·백운동정원·고인돌 유적지 추천

전남도가 남도의 특색이 깃든 문화·예술 여행지로 강진 백운동정원, 보성 열화정, 장성 금곡영화마을, 화순 고인돌 유적지 등 4곳을 10월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강진 백운동정원은 호남의 3대 정원 중 하나다. 국가지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원림의 제12경 운당원의 왕대나무숲은 TV 주말드라마 '환혼'의 촬영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정약용, 초의선사가 차를 만들어 즐기면서 제다법을 전한 곳으로 조선시대 차문화의 역사가 깃든 유서 깊은 장소다. 인근 강진만 생태공원에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린다.

보성 열화정은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정자다.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했던 인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주인공의 사극 로맨스가 아름답게 연출돼 드라마 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 한옥 양식의 대문과 아담한 연못, 정원에 심어진 벚나무, 석류나무 등은 주변 숲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해 드라마·영화 로케이션 담당자에게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 금곡영화마을은 1950년대 소박한 시골 마을의 모습이 잘 보전된 곳으로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 일반적인 드라마 세트장이 아닌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옛 모습이 정감있게 살아 있다.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 등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졌다. 좁다란 돌담길과 노랗게 익어가는 벼, 키다리 편백나무 등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100억 송이의 가을꽃이 만개하는 '황룡강 가을 꽃축제'가 13일까지 개최된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화순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대 계곡을 따라 약 10㎞에 걸쳐 596기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 축조과정을 보여주는 채석장이 발견돼 당시 석재를 다루는 기술과 운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인돌 유적지에서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다. 4ha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맨드라미 등을 심어 가을꽃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고유의 정취가 느껴지는 잘 보존된 자연·문화 자원이 많다"며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만추의 낭만을 전남에서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담양·장성,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

5년간 국비 666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시·군은 향후 5년간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66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광양시는 봉강면 등 6개 지구, 담양군은 금성면 등 6개 지구, 장성군은 장성읍 등 6개 지구 등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도는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중요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집중 보완하도록 전문가 교육과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시·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시군이 수립하고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선 2020년 보성군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 나주·화순·장흥·강진, 2022년 순천·구례·해남·함평, 2023년 영암·영광 총 11개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돼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